

HYUN WOO & SE JIN

INVITATION



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,
우리 두 사람 하나가 됩니다.



새로운 마음과 새 의미를 간직하며
저희 두 사람이 새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.
좋은 꿈, 바른 뜻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
축복과 격려 주시면 더 없는 기쁨으로
간직하겠습니다.

장덕수 의 장남 장현우
박명애

오행열 의 장녀 오세진
최선희

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
더아리엘 6층 스카이가든홀